

# 원작 ‘인종의 벽’ 깨는 할리우드

## ‘정치적 올바름’ 요구 반영 작위적·몰입 방해 비판도

원작에서 백인으로 묘사된 캐릭터를 비백인 배우가 연기하는 사례가 최근 할리우드에서 잇따르고 있다.

과거 백인 편향으로 쓴소리를 들었던 할리우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리한 설정 때문에 몰입이 방해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흑인 배우 덴절 워싱턴은 최근 애플 TV+가 공개한 영화 ‘맥베스의 비극’에서 맥베스 역을 맡았다.

원작인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는 백인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맥베스를 처단하는 캐릭터인 맥더프와 아내 레이디 맥더프 역시 흑인 배우인 코리 호킨스와 모지스 잉그럼이 각각 연기했다.

워싱턴은 최근 미국 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특별한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하얏트까 말든 파랑든 간에 재능과 자격이 있어서 이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개봉하는 뮤지컬 영화 ‘시라노’도 원작과 다른 인종 설정을 시도했다.

주인공 시라노의 연적이자 여주인공 룩산스가 사랑하는 프랑스 군인 크리스

티앙 역에 흑인인 켈빈 헤리스 주니어를 캐스팅했다.

이 작품의 원작은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쓴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뼈대로 한 뮤지컬 ‘시라노’다. 그간 브로드웨이 뮤지컬에는 백인 배우가 크리스티앙 역을 대부분 맡아왔다.

지난해 10월 나온 SF 영화 ‘둔’에서 프리먼 소녀 차니 역도 흑인 혼혈인 젠데이아 콜먼이 연기했다.

원작 소설에는 차니의 외모와 관련된 마른 체형에 짙은 파란색 눈, 황갈색 긴 머리를 지닌 요정 같은 모습이라고만 나오고 인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앞서 만들어진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관습적으로 백인 여자 배우들을 내세워 왔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화이트 워싱’으로 강하게 비판받았던 할리우드의 과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에는 주요 출연진 대다수가 백인이어서 비난을 받아왔다”며 “원작과 다른 인종 설정은 이런 비난에서 출발한 시도”라고 짚었다.

윤 평론가는 “사회적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는 것도 이유”라며 소수자성을 반영한 다인종 히어로가 등장하는 마블의 ‘이터널스’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반대하는 목소리



영화 ‘맥베스의 비극’에서 맥베스를 연기한 배우 덴절 워싱턴 /애플TV+ 제공

도 만만찮다.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설정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 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백설공주 역으로 라틴계 배우 레이철 지글러가, ‘인어공주’의 공주 역할에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날리 알려진 원작 공주들의 외모와는 판이한 배우들이 캐스팅됐다며 할리우드가 정치적 올바름에 몰두하느라 영화의 개연성은

포기했다는 비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지글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백설공주 연기를 위해 피부를 표백하지 않았다”는 글을 써 원작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윤성은 평론가는 “원작의 전복으로 관객들로서는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며 “(대중적인 캐릭터를) 급작스럽고 억지스럽게 변화시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업영화로 흥행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최예나 “긍정 에너지 전달”

## 미니음반 ‘스마일리’ 발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콘셉트는 ‘스마일리 히어로’ (SMILEY HERO)예요. 제가 가진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전세계 분들을 밝게 웃게 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걸그룹 아이즈원의 ‘만능캐릭터’로 명성을 떨쳤던 최예나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솔로 여가수로 새 출발을 알렸다.

최예나는 지난 17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번째 미니음반 ‘스마일리’ (SMILEY) 쇼케이스에서 “힙합, 알앤비,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취향껏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라고 소개했다.

최예나는 특히 그간 통통 튀는 매력과 입담으로 아이즈원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이름을 날렸다. 솔로로 첫 출발을 알린 이번 미니음반에도 그만의 밝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타이틀곡 ‘스마일리’ (SMILEY)는 업템포 댄스팝 장르로 강렬한 드럼 사운드와 드라이브 리듬 기타가 돋보이는 노래다.

최예나는 2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



최예나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제공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두고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는 날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2022년부터는 ‘스마일리’를 들으시면서 웃음 가득한 행복한 일만 일어나도록 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랫동안 무대를 기다려준 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고 행복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멋진 솔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돌싱글즈2 /MBN 인스타그램

# ‘돌싱글즈2’ 콘텐츠 영향력 8위

## 이혼 남녀 출연 폭풍공감

이혼한 남녀가 출연하는 ‘돌싱글즈’가 시즌2에서도 폭풍 공감을 사며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18일 CJ ENM이 발표한 지난 1월 첫째 주(3~9일) 콘텐츠 영향력 평가 지수 집계 따르면 MBN 예능 ‘돌싱글즈’는 종합 부문 8위를 차지했다.

‘돌싱글즈’는 이른바 ‘돌싱’ (돌아온 싱글)들의 연애와 동거 생활을 관찰하는 예능이다. 이혼 남녀가 출연한다는 파격적인 설정과 자녀 유무에 따라 상대의 선

택이 달라지는 등 현실적인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호감을 시즌1 때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속도감이 붙었다.

출연자들의 캐릭터도 다양하다는 평가다. 촬영 당시 이혼 3개월 차였던 김은영 씨를 비롯해 각자 지닌 아픔을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또 출연자들이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고충을 나누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시청자들을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자본주의학교’ 31일 첫방송

## 10대 경제교육 예능

10대들의 기상천외한 경제생활을 들여다보고 경제교육을 해주는 예능 ‘자본주의학교’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KBS는 오는 31일 밤 9시 50분 ‘자본주의 학교’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학교’는 경제 관찰 예능으로 훗날 경제 주체가 될 10대들의 경제

활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 생존법인 ‘돈 공부’를 가르쳐준다.

홍진경이 MC를 맡았으며, 첫 녹화에서는 세뱃돈을 주식 계좌에 넣었다가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홍진경의 10대 딸 라엘이의 경험이 공개됐다.

프로그램에는 ‘돈 공부’를 할 10대들이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 동물부터 천만배우·감독까지...신스틸러 맹활약

주연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 ‘신스틸러’ (scene-stealer)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고양이, 펭귄 등 동물부터 우정 출연한 천만 배우와 다른 영화를 연출한 감독까지 등장해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화 ‘특송’에서는 박소담이 연기한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의 반려묘 ‘포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포동이는 부산에 있는 백강산업에서 일하는 은하가 남포동에서 구조한 유기묘로 나온다.

포동이는 ‘집사’ 은하와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주며 애묘인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박소담도 개인 SNS에 포동이와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포동이는 실제 유기묘는 아니고, 연기하는 동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개봉을 앞둔 ‘해적:도깨비 깃발’에는 펭귄 때가 등장한다.

왜구의 배에서 태어나 해랑(한효주 분)의 해적단에 합류해 탐만 나면 배신을 일삼으며 해적왕을 꿈꾸는 막이(이광수)는 보물을 찾아 나선 길에 우연히 마주친 펭귄들과 배꼽 잡는 호흡을 보여준다.



영화 ‘특송’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준 은하(박소담)와 반려묘 포동. /NEW 제공

## ‘특송’ 유기묘 포동이 인기...즐거움 선사 ‘해적:도깨비 깃발’ 펭귄, 이광수와 호흡

이광수는 최근 언론 시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호흡 중 최고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주연 배우인 한효주와 강하늘 역

시 이광수와 펭귄의 호흡을 최고로 꼽았다.

이 장면은 실제 펭귄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완성됐다. 이광수

는 “(펭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기했는데, 제 상상보다 더 다양한 움직임과 표정을 보여줘서 감탄하면서 봤다”고 말했다.

‘해적’과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킹메이커’는 천만 영화 ‘극한직업’의 배우 진선규가 문을 연다.

야당 정치인 김은범(설경구)을 만나기 전, 약방을 운영하던 서창대(이선균)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농부다. 농부가 서창대에게 털어놓는 고민과 서창대가 던져주는 해법을 담은 짧은 에피소드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진선규는 변성현 감독의 전작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부패한 보안계장으로 출연했고, 이후 변 감독과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우정 출연으로 이어졌다.

지난 5일 개봉한 ‘경관의 피’에서는 화가이자 가수, 연기를 겸하며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어내는 백현진이 광수대 에이스 박강윤(조진웅)에 협력하는 사채업자로, 영화 ‘무산일기’와 ‘파고’ 등을 연출한 박정범 감독이 박강윤을 감시하는 신인 경찰 최민재(최우식)의 아버지 최동수로 등장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9일 (음력 12월 17일)

**子** 48년생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은 수정하라. 60년생 급전거레는 다음 기회로 미뤄라. 72년생 뒷사람과 다를 수 있다. 84년생 오르코 또 오르니 정상이 보인다.

**丑** 49년생 집안에 경사가 연이어 생긴다. 61년생 신중함 언행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73년생 쉽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85년생 지출이 많은 날이다.

**寅** 50년생 욕심을 버리면 하루가 편안하다. 62년생 싱글은 운명의 사랑을 만난다. 74년생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86년생 공짜 술을 얻어먹겠다.

**卯** 51년생 때로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63년생 누가 뭐래도 성공의 열쇠는 노력이다. 75년생 막힌 자금사정이 해결된다. 87년생 승승장구하는 날이다.

**辰** 52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툭리는 날이다. 64년생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된다. 76년생 대의명분 없는 싸움은 절대 금물이다. 88년생 싱글은 연인을 만난다.

**巳** 41년생 근심거리가 해결된다. 53년생 기대 끝에 실망이 자리 잡고 있다. 65년생 내일이 아니라면 참견하지 마라. 77년생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하다.

**午** 42년생 빌려준 돈을 받는 날이다. 54년생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라. 66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78년생 바라던 소원이 성취된다.

**未** 43년생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마라. 55년생 가까운 동료와의 갈등이 있겠다. 67년생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라. 79년생 과거는 있고 현실에 충실하라.

**申** 44년생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56년생 명성을 천하에 떨친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80년생 고요함 속에 위태로움이 있다.

**酉** 45년생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57년생 하늘 아래 이 한 몸 실 곳이 없다. 69년생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다. 81년생 되는 일이 없으니 난감하다.

**戌** 46년생 어지러운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된다. 58년생 주변 사람 모두 내 편이다. 70년생 평소 같고 뒤는 실력을 펼친다. 82년생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난다.

**亥** 47년생 아무리 다급하다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59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1년생 융통성이 필요한 날이다. 83년생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다.